

3차 남북 정상회담 키워드는 '비핵화'

임종석 준비위원장 브리핑 역사상 첫 실질적 의제 구체적 합의문 나올지 주목



공식 환영 행사에 참여한 후 첫날 오후부터 곧바로 임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시작했다. 임 위원장은 "2000년, 2007년과 비교하면, 그때는 첫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하고, 둘째 날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런 형식적 절차를 걷고 첫날부터 곧바로 두 정상 간 회담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공식 회담은 둘째 날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논의의 진전에 따라 둘째날 오후까지도 따라론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비

핵화라는 점을 임 위원장은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라며 "과거 비핵화 의제가 (남북) 정상 간 의제로 올라간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도 비핵화 의제가 중심의제가 돼 있고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제한적이다"라며 "두 정상이 얼마나 진솔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아니면 구두 합의가 이뤄져서 발표될 수 있을지, 모든 부분이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 간 대화에 모든 무게가 두어져 있는 점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

가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에게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의 생각을 김 위원장보다 문 대통령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하고,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가진 생각과 감감함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충분히 듣게 된다면 (비핵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관련 포인트는 '생중계'다. 임 위원장은 "평양에서 이뤄졌던 어떤 행사도 생방송으로 진행된 적은 없었다"며 "이번 어느 정도의 일정 생방송으로 진행될지 실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남측은)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환영행사에서부터 중요한 일정이 생방송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의 동력을 되살리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임종석(사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정상회담은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모든 무게가 뒤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로 방북할 예정이다. 오전 10시께 순안공항에서

"반원 119소방안전센터 필요"

국주영은, 전주 서북권 주민 안전위한 소방력 한계 지적



전북도의회 국주영은(행정자치위원회, 전주9·사진) 의원이 17일, 제35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주 서북권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반원 119소방안전센터'를 신축할 것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주 서북권 지역은 공업단지와 주택단지가 혼재돼있고 혁신도시, 만성지구 법조타운 등이 들어서 향후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현재의 소방력으로는 지속적으론 늘어나는 소방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고 고지대인 덕진구 동산동 일대의 소방진입로가 협소해 화재발생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와 지역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소방도로 확장과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와 인공유입에 따른 안전적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원 119소방안전센터'를 신축할 것'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재난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라도 전주시 서북권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수석들과 함께 박수 치고 있다.

김중희, 행안부 특교세 확보에 저력 발휘

김제 15억원·부안 9억원 성과



국회 김중희 의원(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지역구인 김제와 부안에 24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17일 김 의원에 따르면 김제지역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세는 ▲김보론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철거 및 보수작업비 5억원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신축 사업비 5억원 ▲죽산 급수구역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비 3억원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원 등 4건에 15억원이다. 부안지역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세는 ▲새만금 세계 캠퍼리 경관 쉼터 조성

사업비 3억원 ▲동진고마지구 교량정비 사업비 3억원 ▲부안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립비 3억원 등 3건에 9억원이다. 김 의원은 "시급한 반영이 필요한 지역현안사업과 재난 안전수요를 김제시와 부안군으로부터 제출받아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면서 "긴밀하고 심도있는 시군간 소통으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국가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세금폭탄론은 전형적 흑세무민"

정의당, 부동산정책 관련 한국당 주장에 쓴 소리

정의당은 17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세금폭탄론은 전형적 흑세무민"이라고 질타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사람은 22만명"이라며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사람은 2만 5504명에 불과하며, 세수인상분이 2700억원에 그쳐 실질적 불로소득 환수조치로 보기에 여전히 미흡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세금폭탄을 꺼낸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며 "국회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값이 수억원 올라간 강남 3구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 74명 중 41명이 한국당으로 55%를 차지했고,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는 64명 중 33명이 한국당으로 51.5%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결국 국회 5개 정당 중 강남에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당' 그 자

체"라며 "그런 한국당이 부동산 기득권 집단과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 대책을 연일 때리고 있는 셈이다. 한 마디로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쓰고, '내 세금 폭탄'이라고 읽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은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얼마나 불로소득을 올렸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과연 한국당이 사익에 따라 세금폭탄을 주장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한국당은 괜히 애민 국민을 팔아 자기들 집값을 지키려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건설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정부의 부동

산 대책 발표 이후 한국당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중부세 폭탄 괴담' 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괴담은 말 그대로 괴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부세는 철저히 다주택자, 투기 수요자,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물림으로써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집값 안정을 이루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이러한 중부세 과세를 두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상식적인 집값 상승에는 단호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가 중부세 괴담 등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향후에도 일관된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조배숙, 국비 10억 확보... 주민 숙원사업 해결 가시화

조배숙 의원이 10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이 해결될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은(민주평화당/전북익산)은 17일, 익산 제2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5억,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사업 5억원 등 총 10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익산 제2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된지 20년이 넘게 이르는 산단 근로자들의 통행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제2일

반산업단지의 환경이 개선되면 기업투자 촉진은 물론 산단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통행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마한로 도로개설 사업은 어양동 변전소 일원 지역의 미개설구간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 총 8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이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 및 인근 초·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도 확보될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은 "앞으로도 익산시민들의 다양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이번 추석에는 늘 고마웠던 분께 정성을 담아 준비한 장수 농·특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장수

장수군 JANGSU COUNTY

www.장수물.com NAVER 장수군청 검색